

2016년 10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6.10.28(금) 14:00~15:30

■ 주요 회의 내용

▲ 보도의 균형과 가치 제고

- 한 가지 특정 이슈로 매시간 방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다른 뉴스를 놓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있어 균형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함. 연합뉴스TV는 차분한 사실 위주의 리포트인데 최근 이슈관련 뉴스들은 다소 힘과 감정이 들어간 느낌이 듦. 다른 뉴스도 함께 다뤄 균형감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됨(이재경 위원)
- 많은 양의 뉴스를 모두 전달하기 보다는 시간을 들여 보도할 사안인지 보도의 가치 유무와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함(이태식 위원장)

▲ 사건사고 보도시 주의사항

- 사건사고 보도의 경우 사건적인 접근보다 사회문제 차원에서 발생 원인과 방지 방안에 대해 전달해주면 좋을 것(이태식 위원장)
- 사건사고 현장 보도시 화면에 참혹한 사고현장을 보여줌으로서 뉴스를 접하자마자 충격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음. 화면 구성시 지나치게 충격적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이태식 위원장)

▲ 자막, 외래어, 표현 등 개선 필요

- 18일 오후 4시에 방송되는 '뉴스 1번지' 에서 UN 인권결의안 (기권, 찬성) 관련 송민순 전 장관 인터뷰 자막에 "정쟁으로 삼으면 안된다"는 내용 중 "정쟁"이란 표기를 "정정"으로 오기가 2번이나 반복되는 자막이 뜨는 실수가 발생됨. 27일 전부회장 관련 뉴스에서 스크롤 자막에는 내일 소환이라고 나왔음. 하지만 오늘 같은 뉴스에서 스크롤 자막이 오늘 소환이 아닌 내일소환이라고 어제 내용 그대로 나옴. 사전, 사후 자막 스크린 철저 요망(신현택 부위원장)
- 리포트 속에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가 눈에 많이 띈. 일상속에서 많이 쓰이고 있긴 하지만 외래어 사용에 대해 한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이재경 위원)
- 자막에서 한자어가 과도하게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여겨짐. 예를 들어 특정인의 이름을 약자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자막 전체 숫자를 줄이기 위한 차원인 것은 이해가 되지만 방송에서는 되도록 한자어를 지양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됨(주철환 위원)
- 뉴스 전달시 오래된 자료화면이 지나치게 많고 보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점이 시청자들과의 교감이 떨어짐(이태식 위원장)

▲ 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제안

- 중요한 국제뉴스를 모아서 대담을 한다든지 시청자들에게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해주면 좋을 것(이태식 위원장)
- 국내 상황과 안보 태세에 대해 국민을 안심시킨다는 취지에서 휴전선에 근무하는 사병등과 해외에서 보는 시각과 반응을 담아 소개해주면 시청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이태식 위원장)
- 문화 관련 뉴스가 너무 적음. 있더라도 연예관련 뉴스에 한정됐음. 우리 사회가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대중문화 뿐 아니라 문화관련 뉴스도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주철환 위원)
- 연합뉴스TV의 전략적인 강점이 해외취재망이고 우리나라 대중매체들의 약점이 국제보도를 소홀히 하는것. 시청자들은 해외뉴스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음. 연합뉴스TV에서 일주일에 한 시간씩이라도 해외 주요뉴스에 대한 종합정리를 해준다면 뉴스의 격상승과 시청자의 안목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재경 위원)
- 진행자가 두 분이다 보니 산만한 감도 있고 어느 한분이 책임지고 전달한다기 보다 남자진행자가 한마디 한 후 다른 한분이 이어서 전달하고 그 후 리포터로 연결이 되는 형태임. 한 이슈를 한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달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봐야 함(이태식 위원장)
- 뉴스 중에 핫뉴스가 있는데 핫뉴스란 이 시간에 가장 관심을 끄는 뉴스라고 이해하고 있음. 하지만 내용은 핫뉴스라기보다 이색뉴스에 가까움(이태식 위원장)
- 종편의 저녁뉴스에서 정치관련 토크쇼가 많은데 연합뉴스TV는 부족한 느낌인데 시청자를 위해서 새로운 패널을 모셔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함.
- 단편적인 뉴스를 하다 보니 문화관련 기획뉴스가 부족한 느낌임. 문화관련 기획 뉴스를 강화시킨다면 여성시청자를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함(정현주 위원)
- 일부 리포트의 경우, 인터뷰나 CG등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화면만 사용한 리포트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음. 연합뉴스TV에서는 스탠드업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인터뷰도 없고 CG도 없는 기사는 정말 재미없고 지루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함. 생동감과 현장감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여겨짐(주철환 위원)
- 성공다큐 편성시간을 조정하면 어떨까 생각함 저녁 7시~7시 30분대에는 뉴스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대로 타사들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시간임. 성공다큐는 매우 유익하고 시청자에게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이므로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뉴스 시간을 피해 조금 일찍 소개 한다면 어떨까 함(이태식 위원장)

▲ 아나운서, 출연자, 특파원 관련 의견

- 젊은 아나운서의 비율이 높다 보니 시청자에게 뉴스 전달에 중량감이 다소 떨어지고 산만해보임. 보다 중량감 있게 전달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함(이태식 위원장)
- 아나운서의 연령층이 젊은 증이므로 경험 많은 간판급 아나운서의 스카우트를 해보면 어떨까 함(정현주 위원)
- 오후 2~3시 시간대 뉴스에서 핫이슈를 다룰 때 아나운서들이 말을 빨리하고 격앙되다 보면 박원순시장을 박대통령이라고 말하는 등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음 경험이 적은 아나운서들은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음(박정숙 위원)
- 최근 사태로 온 나라의 언론과 국민들 모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느낌임. 연합뉴스TV가 중심을 잡고 국가의 많은 원로님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국민들에게 전달한다면 시청자에게 전달력도 높이고 차별화도 될 것(이태식 위원장)
- 전문기자 등 데스크급 기자들이 출연하면 어떨까 싶음. 타사의 경우 부국장이나 선임기자가, 종편 모방송은 정치부장이 출연하는 것을 봤는데 연합뉴스TV의 경우에도 너무 똑같은 출연자들이 계속 나오면서 새로운 내용이 없고 식상한 내용이 반복되는 느낌이 들었음. 데스크급 기자들은 그 분야의 회사를 대표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대담 등에 적극 출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임(주철환 위원)
- 최근 사태관련 보도를 하는 독일 특파원의 옷차림이 정장일 필요는 없겠지만, 시청에 불편한 복장이었음(김용직 위원)
- 연합뉴스 해외특파원들이 현지에서 소식을 전해오는 것을 많이 봤음. 그런데 기초적인 방송에 대한 교육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임. 전달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스탠드업 영상을 보면 가정용 홈비디오 정도의 수준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을 정도여서 전체 뉴스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것 같음. 특파원들에게도 방송 교육이 필요해 보임(주철환 위원)

▲ 긍정적 평가 및 기타의견

- 22일 보도내용 중 "조선총련 과학자들, 북한에 미사일 관련 기술 제공 가능성" 관련뉴스는 향후 남북협력 추진에 있어서 국방기술로의 전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은 특별히 조심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좋은 내용이었음(김상선 위원)
- 27일 '투나잇 23' 시간에 소개된 'IoT 기술로 공사장 안전관리' 사례는 과학기술 발달 및 실제 활용현장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었음. 오늘날 경제사회는 물론 국가안보, 문화, 예술, 체육 등 모든 분야에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덕연구단지 등 산·학·연 연구현장의 최근의 과학기술개발 관련 뉴스를 좀 더 자주 전해줌으로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 주시기 바람(김상선 위원)

-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30분에 방영되는 '성공다큐-정상에 서다'는 성공한 사례를 집중 보도함으로써 그 가운데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임. 다만 지금까지 대상기업이 주로 전통산업(거울우유, 하림, 진주햄, 화성산업, 대상, 신태양건설 등)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대상기업에 첨단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업(강소기업, 히든 챔피언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김상선 위원)
 - 최순실 관련 보도가 경쟁하듯 격앙되게 보도하고 있는데 반해 연합뉴스TV는 차분하고 균형 있게 보도하고 있어 신뢰감이 듦(박정숙 위원)
 - 특파원 보도에서는 타사보다 연합뉴스TV가 직접 스탠딩 보도를 하고 있어 매우 관찮게 생각됨(박정숙 위원)
 - 기자정신을 고취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의견임. 요즘 드러난 사태들은 조짐이 상당히 있어 당연히 면밀하게 취재를 했었어야 했는데, 다른 방송에서 한 것을 연합뉴스TV에서는 왜 못 했을까 함. 특히 뉴스채널이기 때문에 더 철저히 기자정신으로 무장해 취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김용직 위원)
 - 게시판 관련해 특정인의 글이 도배되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판단됨. 언론사의 홈페이지는 제보가 올라올 수도 있고 다양한 토론의 장이 될 수도 있는데, 실명제 등을 포함해 관리방안 강구가 필요해 보임(주철환 위원)
- . (끝)